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어민 공익수당 농가당 연간60만원 지급

정읍시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69억4천만원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수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양봉농가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꿀벌(보통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해야 하고, 어업 농가는 어업 관련법에 따라 양식업·수산 종자생산업 허가 및 내수면 어업 신고가 유효한 여가 해당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동진면 사회단체 다중시설 집중방역 실시

부안군 동진면 사회단체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내 경로당, 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일제히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설 명절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에는 동진면 의용소방대(대장 심영구) 대원 10여명이 조를 나눠서 경로당, 정류장 등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민간 위원장 전종각) 위원 6명이 경로당, 정류장 등에 소독을 완료했다.

이번 사회단체의 방역 활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진행하게 됐다.

동진면 의용소방대 심영구 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이 안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 활동 추진하여 안전한 동진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의 겨울은 따뜻했다’

사랑의 온도탑 187도 달성... 군민모두 한바탕으로 울림

고창군이 '희망2022 나눔캠페인(2021년 12월01일~2022년 1월31일, 62일간)'을 펼친 결과, 사랑의 온도탑이 당초 목표보다 높은 187도를 기록했다.



액을 훌쩍 넘기며 매년 목표액을 월등히 초과하는 성과를 이뤄내게 됐다. 익명의 기부천사들, 고사리 손으로 소중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한 어린이들과 학생들, 매년 연말연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되돌아보며 나눔에 앞장서는 지역 기업들과 나눔리더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계각

층의 성금전달이 잇따르고 고창군 공직자들도 나눔과 기부에 나서며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기게 됐다.

희망2022나눔캠페인 기간 모여진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경제적 빈곤퇴치,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교육 및 직업역량 강화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관내 소외 이웃과 복지시설 등에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온도 100도를 넘긴 것은 위기 속에서도 나눔과 봉사로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랑스런 고창군민들 힘 덕분이다"며 "뜨거운 나눔 실천에 함께 해주신 기업들과, 단체, 개인 기부자들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코로나19시대 대표적 면역·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창 복분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울림이 펼쳐진다.

‘고창 복분자’ 제2 도약 꿈꾼다

고창군, 생산농가·가공업체·수매기관 모여 활성화 토론회 열어

코로나19시대 대표적 면역·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창 복분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울림이 펼쳐진다.

전북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4일 복분자 생산 농가와 복분자 가공업체, 수매기관(농협)이 참여한 '복분자 산업 재도약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복분자 활성화에 대한 지역 안팎의 비상한 관심과 복분자 생산 농가들의 의지가 반영됐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복분자 산업 발전을 위해 수매장려금 지원과 복분자 고사율 감소를 위한 재배기술 및 실증시험 연구 등에 18억48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복분자 관련 산업 집적화 단체인 '복분자산업특구(아산·심원·부안면 일원 508만8404㎡)'가 식초산업을 더해 '고창복분자·식초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6차 산업의 선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특구계획 변경으로 고창은 기존 복분자산업 고도화와 함께 식초산업을 추가해 가공식품개발, 유통체계 현대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분자 고사율인 극복을 위한 국가 기관의 연구와 재배기술 교육 등으로 재도약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창 황토에서 자란 복분자는 향과 맛이 뛰어나다. 면역력 증진과 원기회복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복분자주와 복분자발사믹식초 등 다양한 제품들이 국내 소비지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지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다. 실제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에 3억 3000만원 상당의 수출과 특구지역내 기업의 꾸준한 매출액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수는 "복분자의 도시 고창의 명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 복분자 면적을 확대해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총력 기울일 것”

유진섭 시장 간부회의 주제, 중대 재해 처벌법, 고향사랑 기부제 등 시민홍보 강화 '주문'

유진섭 시장이 7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 수칙 준수 지도점검 방안 마련과 변이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유 시장은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해 완전히 막기는 불가능하나, 의료체계가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선제적·전력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이동,

만남 자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시민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시

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시설 점검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

로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관계 법령 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안정적 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진섭 시장은 건조한 날씨로 산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발 방지 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산발청·소방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한 산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코로나 블루 극복 '마을 안심 버스' 운행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 등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3월부터 찾아가는 마음 건강 서비스를 시작한다.

찾아가는 마음 건강 서비스는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음 안심 버스(이동식 상담실) 차량을 활용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마음 안심 버스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9,500만원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상담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조했다.

버스 내부는 개인 상담과 스트레스

측정 공간 대기실로 구분해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정신건강 취약계층(노인 장애 인 등)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버스 내 장비와 공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평가와 스트레스 측정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 전문가 연계를 통해 마음 건강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버스는 주 4회 평일 사전 예약한 신청기관과 경로당, 취약계층, 코로나19 대응 인력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마음 안심 버스 이용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 전화(063-636-2101)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11월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 건강 돌봄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벤처농업대 신입생 모집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종구)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친환경 벤처농업대학은 치유농업반, 푸드플랜반, 참풍부안한우반 등 3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학과별 25명~40명씩 모두 9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이론교육, 현장학습, 실습 등 중장기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시간은 과별 100시간(20회이상)이다.치유농업반은 농업인 육성 위한 치유농업의 유형과 특성, 치유적 환경조성 방법, 관내의 체험농장 현장견학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

는 체계적인 학습이 진행된다.푸드플랜반은 로컬푸드 기획생산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푸드플랜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이론 및 체험 실습으로 진행된다.

참풍부안한우반은 부안군의 축산물 공동 브랜드를 개발 홍보 및 우리지역의 한우 축산물의 품질 관리와 사육기술의 심화교육으로 전문 축산인 양성 과정을 다루게 된다.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와 군청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농업기술센터에 응시원서를 제출 또는 강소농 육성팀으로 문의(580-3841)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